

호주 축산 전망: 2026/27년 수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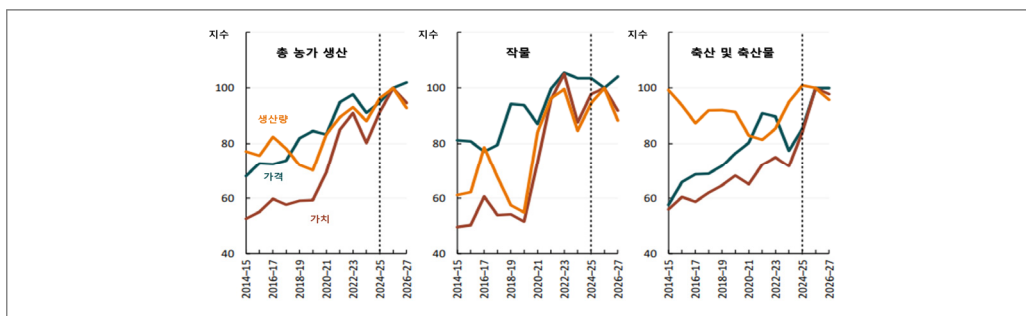
정 소 영*

1. 개요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 는 2026년 6월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를 통해 2026/27년 호주 농업 및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정전망을 발표하였다. 수정전망은 3월 이후 기후 전망,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이에 따른 에너지 및 투입재 가격 상승, 세계 경제성장 전망의 변화, 호주달러 가치 상승, 중국의 소고기 수입 세이프가드 등 새롭게 확인된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수정전망에 따르면 2026/27년 호주 총 농업 생산액은 전년 전망(2025/26) 대비 5% 감소한 983억 호주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치 감소는 축산 및 축산물 생산액 감소(11억 호주달러)와 작물 생산액 감소(45억 호주달러)로부터 기인한다 (<그림 1> 참조).

〈그림 1〉 2026년 6월 수정전망 주요 결과



주 1) 지수 100 = 2025-26. 점선 오른쪽 연도 값은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ABARES(2026: 6).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박사과정(soyeong_j@korea.ac.kr).

본고는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에서 2026년 6월에 발간한 보고서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 4장 'Outlook for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작성됨.

3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작물 생산액을 하향 조정되었으나 이를 상쇄할 만큼 축산 및 축산물 생산액 전망이 상향 조정되어 총 농업 생산액은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BARES는 6월 수정전망에서 2026/27년 축산 및 축산물 총생산액을 474억 호주달러로 전망하였다. 이는 2026년 3월에 전망한 2026/27년 6월 전망치인 434억 달러 대비 약 40억 달러(9.2%) 높은 수준이다.

3월 당시 예사보다 건조해진 기후 전망으로 인해 가축 출하가 예상보다 많이 이루어지면서 소와 양을 중심으로 도축 및 육류 생산량 전망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수출 전망도 약 378억 호주달러로 제시해 3월 전망보다 약 36억 호주달러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향 조정은 소고기와 양고기의 수출물량 전망이 높아진 데다, 양모와 유제품의 수출가격 전망이 개선되고 육류 수출가격의 하락 폭도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주요 수출시장의 가치분소득 증가세 약화, 호주 달러 강세는 소고기와 양고기를 중심으로 호주산 축산물의 수요와 가격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축산 및 축산물 총 생산액은 2023/24년 349억 호주달러에서 2024/25년 409억 호주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26년 전망치는 485억 달러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6/27년에는 474억 호주달러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9.2% 상향 조정된 것으로 최근 전망에서는 축산 및 축산물 생산액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송아지, 어린 양, 가금류 및 원유 등의 생산액 전망이 2023/24년 이후로 상승하다가 2025/26년 전망치 대비 하락하나, 3월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되었다. 반면, 돼지, 가금류는 2023/24년 생산액 대비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3월 전망치보다 소폭 하향 조정되었다. 특히 3월 전망치 대비 소·송아지의 상향 폭이 가장 컸는데, 건조한 계절 여건에 따른 높은 가축 출하와 도축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원유는 생산량보다 가격 전망 개선이, 가금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내 수요에 따른 생산 확대가 생산액 상향을 주도하였다(〈표 1〉 참고).

〈표 1〉 2026년 3월 대비 6월 축산 및 축산물 생산액 전망 변화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A) ^f		2026/27(B) ^f		2025/26 전망 변화액(율)	2026/27 전망 변화액(율)	
			3월	6월	3월	6월			
축산									
도축 생산액	소, 송아지	12,974	17,701	21,666	22,940	18,618	21,316	1,274(5.9)	2,698(14.5)
	양	569	1,078	1,368	1,504	1,102	1,168	136(9.9)	66(6)
	새끼 양	3,579	4,569	5,436	5,565	5,037	5,563	129(2.4)	526(10.4)
	돼지	1,834	2,014	2,213	2,126	2,330	2,214	-87(-3.9)	-116(-5)
	가금류	4,057	4,150	4,226	4,251	4,259	4,737	25(0.6)	478(11.2)
	염소	102	171	348	307	347	302	-41(-11.8)	-45(-13)
	기타	62	63	64	69	66	71	5(7.8)	5(7.9)
생축 수출액	소	967	960	1,021	979	999	988	-42(-4.1)	-11(-1.1)
	양	46	56	48	19	33	36	-29(-60.6)	3(8.8)
	염소	8	4	6	5	5	4	-1(-22)	-1(-25)
	기타	199	198	199	207	185	193	8(4.1)	8(4.6)
축산 총생산액(A)		24,398	30,964	36,596	37,971	32,981	36,592	1375 (3.8)	3611 (10.9)
축산물									
축산물 생산액	양모	2,857	2,496	2,855	2,940	3,209	3,122	85(3)	-87(-2.7)
	원유	6,234	5,959	5,989	6,044	5,727	6,127	55(0.9)	400(7)
	계란	1,287	1,388	1,396	1,396	1,377	1,445	0(0)	68(4.9)
	꿀, 양봉 산물	136	122	122	123	131	126	1(0.7)	-5 (-3.8)
축산물 총생산액(B)		10,513	9,965	10,362	10,503	10,444	10,820	141(1.4)	376(3.6)
축산 및 축산물 총생산액(A+B)		34,911	40,929	46,958	48,474	43,425	47,412	1,516(3.2)	3,987(9.2)

주 1) 축산 및 축산물 총생산액(gross value of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은 생축 수출액이 일부 포함됨.

2) 도축 생산액에서 소와 송아지는 젖소(dairy cattle)는 포함하고, 가죽(skin and hide)의 가치는 제외함.

3) 도축 생산액에서 양, 람, 돼지는 가죽(skin and hide)의 가치는 제외함.

4) 생축 수출액에서 소는 비육용(feeder/slaughter), 번식용(breeding), 낙농용(dairy)을 포함한 모든 소(all bovine)를 포함함.

5) 생축 수출액에서 양은 번식용 가죽(breeding stock)을 포함함.

6) 축산물 생산액에서 양모는 전지 양모(shorn wool), 도축 후 양가죽에서 회수한 양모(펠몽거 처리 양모: fellmongered wool), 가죽 부착 양모(wool on skins)를 모두 포함함.

7) 축산물 생산액에서 원유는 유업체 반입량을 기준으로 원유 생산자 가격(farmgate price)으로 평가함.

8)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임.

9) 전망 변화액(율)은 3월 전망치 대비 6월 전망치 변화액(율)을 의미함.

자료: ABARES(검색일: 2026.8.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본 고에서는 전망에 영향을 주는 기후, 거시 경제 및 사회 요인 등에 의한 전망 베이스라인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3월 전망 대비 축산 및 축산물 분야 전망의 차이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쇠고기, 양고기, 유제품, 돼지고기, 가금류, 계란을 대상으로 생산 전망, 무역 전망, 가격 전망,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을 품목별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전망 베이스라인의 변화

ABARES 전망 보고서는 거시경제 및 기후 여건 등에 대한 전망을 전제조건으로 활용하며 각 분기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생산·가격·수출 전망을 조정한다. 특히 농업 관련 수정전망에 있어 거시 경제(세계 경제성장률 및 호주 경제성장률, 물가, 기준금리, 환율 등)와 국제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농업/투입재 가격 변화, 기후 전망 변화 등을 고려한다.

6월 전망에서는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하였다. 3월 전망보고서에서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3%로 두고 있으나 6월 수정전망에서는 3.0%로, 호주의 2026/27년 성장률은 2.25%에서 1.75%로 경제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다. 물가와 금융여건 측면에서 6월 전망에서는 국제 비용 상승을 반영하여 호주의 2025/26년 물가상승률 전망이 3월 전망 베이스라인인 3.4%에서 약 5%로 높아졌으며, 이후 2026/27년에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도 3월 전망 당시 3.85%에서 5월 4.35%로 상승하였다.

특히 에너지와 농업 투입비에 대한 전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월에는 에너지가 가격 하락이 세계 물가 둔화의 한 요인으로 제시된 반면, 6월에는 중동 분쟁 이후 에너지 공급 차질을 반영하여 Tapis 원유가격이 2026년 6월 분기에 배럴당 약 100달러를 기록한 뒤 2027년 중반부터 약 80달러 수준으로 안정되는 경로를 전제하였다. 또한 2026/27년 연료 및 비료 가격지수는 각각 전년 대비 11%, 2%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체 투입재 가격 상승률은 3월과 동일한 2%이지만, 연료가격 전망이 하락에서 큰 폭의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비용 전제가 달라졌다.

환율 측면에서는 호주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3월에는 2026년 평균 환

율을 호주달러1당 US\$0.69로 전망하면서 호주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호주달러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았다. 6월에도 이러한 방향은 유지되었으나, 2026/27년 평균 환율이 약 US\$0.72/호주달러로 전망되면서 호주달러 강세가 농산물 수출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¹⁾

기후 여건은 이미 3월 전망에서도 건조 위험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6월 전망에서는 건조 위험이 겨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와 퀸즐랜드 남동부를 중심으로 계절 여건이 실제로 악화하였고, 6~8월에는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남호주 및 서호주 남서부 등 주요 농업지역에서 평년 중간값보다 적은 강수량이 나타날 확률이 약 60~80%에 이르며, 특히 서부 지역과 최남동부 지역에서 평년보다 적은 비가 올 확률이 가장 높게 전망되었다.

〈표 2〉 2026년 3월 대비 6월 농업 전망의 주요 전제 변화

구분	2026년 3월 전망	2026년 6월 수정전망	주요 변화
세계 경제성장률	2026년 3.3%	2026년 3.0%, 2027년 3.25%	2026년 전망 0.3%p 하향
호주 경제성장률	2026/27년 2.25%	2026/27년 1.75%	0.5%p 하향
호주 물가	2025/26년 3.4%, 2026년 중반 정점 이후 점진적 둔화	2025/26년 약 5.0%, 2026/27년 2.5%	단기 물가경로 상향 조정
호주 기준금리	2026년 2월 3.85%	2026년 5월 4.35%	전망 시점의 금융여건 긴축 강화
호주달러	2026년 평균 US\$0.69/호주달러, 2026~27년 강세 전망	2026/27년 평균 US\$0.72/호주달러전망	호주달러 강세 전망 강화
에너지 가격	세계 물가 둔화의 배경으로 에너지가격 하락을 전제	Tapis 유가가 2026년 6월 분기 약 US\$100/bbl, 이후 2027년 중반 약 US\$80/bbl로 안정되는 경로	중동 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전제 크게 상향
농업 투입재 가격	2026/27년 전체 투입재 가격 +2%. 연료가격 하락, 노동·비료 서비스 가격 상승 전망	전체 투입재 가격 +2%이나, 연료 +11%, 비료 +2%전망	총지수 상승률은 동일하나 비용구조가 에너지 중심으로 악화
기후	가을	3~5월 남부 절반에서 평년 이하 강수확률 60~80%	3월 이후 NSW 북부·QLD 남동부에서 계절여건 악화가 현실화
	겨울	2026/27년 전체 기후에 대한 불확실성 높음. El Niño 전환 가능성 존재	6~8월 주요 남부 농업지역의 평년 이하 강수확률 60~80%

자료: ABARES (2026) 3월호와 6월호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다만 두 전망의 환율 수치는 각각 달러연도와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차이가 있음.

3. 축산 부문 수정전망

2.1. 소고기(Cattle and beef) 전망

2.1.1. 생산 전망

2026/27년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286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최근 10년 평균을 28% 상회한다. 전년 대비 생산 감소는 2025/26년의 높은 가축 출하로 도축 가능한 개체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건조한 기후로 가축 출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생산량 전망은 3월의 264만 톤에서 8.3% 상향 조정되었다.

도축두수 역시 3월 전망의 887만 두에서 6월 948만 두로 6.9% 상향 조정되었다. ABARES는 겨울과 봄철 강수 부족에 따른 호주 동부지역의 목초 생육 악화와 불리한 기후 여건으로 2026/27년 가축 출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2026/27년 소·송아지 도축 생산액은 전년 대비 7% 감소한 213억 호주달러로 전망되나, 3월 전망의 186억 호주달러보다는 14.5% 높은 수준이다. 즉 6월에도 전년 대비 생산량과 생산액 감소 전망은 유지되었으나 높은 출하와 도축이 예상되면서 3월보다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표 2〉 소 사육 및 생산 전망

단위: 백만 두(사육), 천 두(도축), 천 톤(생산), %(변화율)

구분	2023/24	3월 전망			6월 전망			2025/26 전망 변화율	2026/27 전망 변화율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4/25 ^s	2025/26 ^f	2026/27 ^f		
소 사육 두수	30.4	30.1	29.2	28.9	30	28	27	-3.0	-6.9
육우 사육 두수	28.2	28.1	27.3	27.0	27.6	26.3	24.9	-3.7	-7.8
젖소 사육 두수	2.2	2.0	2.0	1.9	2.1	2.1	2	5.0	5.3
도축 두수	8,080	9,275	9,535	8,870	9,275	9,960	9,480	4.5	6.9
생산량	2,397	2,763	2,824	2,641	2,763	2,990	2,861	5.9	8.3

주 1) 사육 두수는 6월 30일 기준임.

2) 도축 두수는 젖소를 포함함.

3) 생산량은 송아지 고기(veal)와 통조림 소고기의 도체중(carcase weight) 환산량을 포함한 값임.

4)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임.

자료: ABARES(202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1.2. 무역 전망

2026/27년 호주의 소고기 수출량은 166.9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 감소한 수준이지만, 3월 전망치인 148.3만 톤과 비교하면 12.6%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이는 6월 전망에서 건조한 기후 여건으로 소 도축과 쇠고기 생산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ABARES는 2026/27년 쇠고기 생산량이 전년 보다 4% 감소하더라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량 역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액 전망의 상향폭은 수출량보다 더욱 크게 나타난다. 2026/27년 소고기 수출액은 181억 호주달러로, 3월 전망의 153억 호주달러보다 18.2%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평균 수출단가도 kg당 10.3호주달러에서 10.8호주달러로 5.2%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6월 수출액 전망의 증가는 생산 및 수출물량 전망의 상향뿐 아니라, 3월에 예상했던 수출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26/27년 비육용 및 도축용 생우(live cattle) 수출은 68만 두로 전망되어, 3월 전망치인 67.4만 두보다 약 0.9%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로는 약 7% 증가한 수준이다. ABARES는 2025/26년 호주 북부지역의 양호한 목초 생육으로 소 사육두수가 증가한 것이 2026/27년 생우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번식용 소까지 포함한 전체 생우 수출은 77.5만 두로 전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26/27년 비육용 및 도축용 생우의 평균 수출가격은 두당 1,171 호주달러(FOB)로, 전년 대비 약 4% 감소하며 3월 전망치인 1,180호주달러보다도 약 0.7%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3〉 소고기 및 생우 수출 전망

단위: 천 톤(선적 중량 기준), 천 두, 백만 호주달러, 호주달러/kg, 호주달러/두, %(변화율)

구분		2023/24	2024/25 ^s	3월 전망		6월 전망		2025/26 전망 변화율	2026/27 전망 변화율
				2025/26 ^f	2026/27 ^f	2025/26 ^f	2026/27 ^f		
소고기	수출량	1,288	1,535	1,612	1,483	1,759	1,669	9.1	12.6
	수출액	12,378	16,095	18,817	15,298	20,549	18,084	9.2	18.2
	평균 단가	9.6	10.5	11.7	10.3	11.7	10.8	-0.2	5.2

(계속)

구분		2023/24	2024/25 ^s	3월 전망		6월 전망		2025/26 전망 변화율	2026/27 전망 변화율
				2025/26 ^f	2026/27 ^f	2025/26 ^f	2026/27 ^f		
생우	수출 두수	611	687	660	674	634	680	-3.9	0.9
	수출액	761	770	804	795	770	797	-4.2	0.2
	평균 단가	1,244.9	1,120.4	1,218.3	1,180.0	1215.3	1171.4	-0.3	-0.7

주 1) 생우는 비육우와 도축용 생우(live feeder and slaughter cattle)를 말하며, 모든 소(bovine)를 포함함.

2) 평균 단가는 수출액을 수출량(또는 수출 두수)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3) 소고기 평균 단가 단위는 호주달러/kg, 생우는 호주달러/두.

4)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임.

자료: ABARES (202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1.3. 가격 전망

2026/27년 소 경매장 평균가격(ABARES Saleyard Indicator Price)²⁾은 전년 대비 약 3% 하락한 kg당 7.45 호주달러(도체중 기준)로 3월 전망치인 7.05 호주달러보다 약 5.7% 상향 조정된 수준이다. 즉 전년 대비 가격 하락 전망은 유지되었지만, 6월에는 당초 예상보다 가격 하락폭이 작을 것으로 수정되었다. ABARES는 주요 수출시장의 소고기 수요 약화와 가공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 도축두수가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가공업체 간 원료 확보 경쟁이 지속되는 점이 경매장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2025~26년에 높아졌던 세계 소고기 수요가 앞으로 둔화되고 중국의 쇠고기 셰이프가드가 가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자국 내 소고기 생산 감소로 수입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을 포함한 주요 고소득 시장에서는 낮은 경제성장과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상대적으로 높은 쇠고기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가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백질로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쇠고기 셰이프가드³⁾ 조치는 6월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호주는 중국이 배정할 연간 20.5만 톤의 쇠고기 수입쿼터 중 약 80%를 이미 소진하였으며, 쿼터가 모두 소진되면 초과 수입분에 55% 관세가 부과할 수 있다. ABARES는 이로 인해 대중국 호주산 쇠고기

2) Meat & Livestock Australia (MLA)의 전국 중량우 (Heavy Steer) 및 가공용 암소 (Processor Cow) 가격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한 가격지표로 도체중 기준 (carcass weight)으로 표기됨.

3) 중국은 2026년부터 수입 쇠고기에 대해 글로벌 셰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산 쇠고기의 2026년 국가별 할당물량은 20만 5천 톤이며, 해당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5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2026년 5월 15일 기준 호주는 연간 할당물량의 약 80%를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수출량이 2026년 중 약 30% 감소할 수 있으며 호주산 쇠고기 수출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후 여건 역시 경매장 가격의 중요한 변수로 제시된다. 6월 기본전망에서는 2026/27년 소 도축두수가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축산물 가공업체 간 소 확보 경쟁이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계절 여건이 전망보다 더 건조해질 경우, 특히 다음 북부 우기에 강수량이 부족하면 가축 출하와 도축이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가공업체 간 원료 소 확보 경쟁과 재입식 수요가 동시에 악화되어 도축용 암소와 중량우 가격이 기본 전망보다 낮아질 수 있다.⁴⁾

따라서 6월 가격 전망은 수출수요 약화와 건조한 기후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전년 대비 낮은 도축두수와 가공업체의 원료 소 확보 경쟁이 가격 하락폭을 제한하는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2026/27년 경매장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낮아지지만, 3월 전망보다는 5.7%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1.4. 불확실성 및 위험·기회요인

2026/27년 호주 소고기 산업의 주요 불확실성은 기후 여건,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및 무역정책 변화, 그리고 생산·가공비 상승에 집중된다. 우선 기후가 더 건조해질 경우 가축 출하와 도축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 북부 우기의 강수량이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 도축두수가 기본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가공업체 간 원료 소 확보 경쟁과 재입식 수요가 악화되어 경매장 가격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의 쇠고기 셰이프가드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6월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호주는 중국이 설정한 연간 20.5만 톤의 쇠고기 수입쿼터 중 약 80%를 이미 소진하였으며, 쿼터 소진 이후에는 초과 수입분에 55%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BARES는 2026년 호주의 대중국 쇠고기 수출이 약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 시장에서의 수입 수요 감소 가능성은 2026/27년 호주산 쇠고기 수출 전망에 주요 불

4) 재입식 수요는 번식이나 추가 사육을 목적으로 생산자가 가축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의미함.

확실성 요인으로 남아 있다. 한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제약도 존재하는데, 생우 수출물량은 증가하나 대체재와의 경쟁으로 인해 수요 확대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⁵⁾

대외 수요 여건도 이전보다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시장의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 가처분소득 제약으로 2025/26년에 나타난 높은 쇠고기 수요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소비가 일부 대체될 수 있다. 아울러 호주달러 강세는 미국 및 브라질산 쇠고기 대비 호주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건조한 계절여건과 함께 사료곡물·조사료·비료 등 투입비가 상승할 경우 축산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가공단계에서도 포장재 등 주요 투입비 상승이 비용 부담을 확대할 수 있어, 생산 및 수출 부문의 추가적인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2. 양고기 및 양모(Lamb, sheep and wool) 전망⁶⁾

2.2.1. 생산 전망

2026/27년 호주의 양고기 생산량 6월 전망치는 80.1만 톤으로 3월 전망치인 73.3만 톤보다 9.3% 상향 조정된 수준이다. ABARES는 2025/26년 후반의 계절여건과 번식 여건 개선으로 2026/27년에 도축 가능한 램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2026/27년 램 도축두수는 2,395만 두로, 3월 전망치 2,246만 두보다 6.6% 상향 조정되었다. 반면 머튼 생산은 가용한 성축의 감소와 암양 보유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축두수 전망은 3월의 711만 두에서 781.5만 두로 9.9% 상향 조정되었다. ABARES는 램 가격과 양모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생산자들이 암양을 농장에 더 많이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6/27년 머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20.2만 톤으로 예상된다.

양 사육두수는 2026/27년 6,560만 두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3월 전망치 6,660만 두보다 1.5% 낮은 수준이다. 최근 남부 양 사육지역의 목초 생

5)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호주산 생우가 현지산 소와 물소뿐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대체 단백질과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있어, 호주산 생우에 대한 수입 수요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6) 양고기는 램(lamb)과 머튼(mutton)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램(lamb)은 1년 미만의 양고기를, 머튼(mutton)은 1년 이상의 양고기를 의미함.

육 여건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향후 목초 생육 악화와 높은 투입비가 사육두수의 본격적인 회복을 제약하면서 의미 있는 규모의 재건은 2027/28년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27년 호주의 전모 양모(shorn wool) 생산량은 약 25.1만 톤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3월 전망치인 27.2만 톤보다 7.8% 하향 조정된 수준으로, 3월 당시 예상했던 생산 증가 전망이 6월에는 감소 전망으로 전환되었다.

전모 양모 생산 감소에는 전모두수와 두당 양모 생산량이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6/27년 전모두수는 5,840만 두로 3월 전망치 6,090만 두보다 4.1% 낮게 조정되었다. ABARES는 과거에 비해 양 떼에서 메리노종의 비중이 낮아지고 셰더 품종(shedder breeds)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모두수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호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계절여건 악화로 두당 양모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모 양모 이외의 양모 생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머튼 도축 감소로 양가족 공급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6/27년 양모 총생산량은 약 34.8만 톤으로, 3월 전망치 36.5만 톤보다 4.7% 하향 조정되었다.

〈표 4〉 양 및 양모 생산 전망

단위: 백만 두(사육), 천 두(도축), 천 톤(생산, 도체중 기준), %(변화율)

구분		2023/24	3월 전망			6월 전망			2025/26 전망 변화율	2026/27 전망 변화율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4/25 ^s	2025/26 ^f	2026/27 ^f		
양	양 사육 두수	71.4	66.4	65.3	66.6	66.0	65.8	65.6	0.8	-1.5
	램 도축 두수	21,146	26,060	23,380	22,460	26,060	22,445	23,950	-4.0	6.6
	머튼 도축 두수	10,399	11,741	8,460	7,110	11,747	8,680	7,815	2.6	9.9
	생산량	916	919	789	733	919	779	801	-1.3	9.3
양모	전모 두수	71.6	63.0	60.2	60.9	63	59.2	58.4	-1.7	-4.1
	전지 양모 생산량	318	280	260	272	280.1	256.145	250.798	-1.5	-7.8
	양모 총생산량	429	418	401	365	418	400	348	-0.2	-4.7

주 1) 양 사육 두수는 6월 30일 기준임.

2) 양고기 생산량은 도체중 기준으로 환산하였으며, 램(lamb)과 머튼(mutton)을 포함함.

3) 양모 생산량은 전지 양모(shorn wool), 도축 후 양가족에서 회수한 양모(fellmongered wool), 양가족을 부착한 양모(wool on skins)를 포함함.

4)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임.

자료: ABARES(202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2.2. 무역 전망

2026/27년 호주의 양고기 수출량은 56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3월 전망치인 49.9만 톤보다 12.2% 상향 조정된 수준이다. 6월 전망에서는 램 도축 증가에 따라 양고기 생산 및 수출 가능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반면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10.1호주달러로 3월 전망치 10.8호주달러보다 6.7%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은 56.5억 호주달러로 3월 전망치 53.7억 호주달러보다 5.1%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즉, 6월 전망에서는 수출물량 증가가 수출액을 끌어올리는 반면, 가격 하락이 그 상승폭을 일부 제약하는 구조로 수정되었다. ABARES는 2026/27년 양고기 수출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의 가치분소득 증가세 둔화, 국제적 불안정에 따른 물류 차질, 호주달러 강세 등을 가격 하락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생양(live sheep)수출은 2026/27년 16만 두로 전망되어 3월 전망치 16.1만 두와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2025/26년 수출 전망이 3월 21만 두에서 6월 7.5만 두로 64.3% 하향 조정되면서, 2026/27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동 지역의 해상운송 차질로 2025/26년 수출이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⁷⁾ ABARES는 향후 중동 교역국으로의 선박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2026/27년 생양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생양 수출액은 2026/27년 약 3,600만 호주달러로 3월 전망보다 7.2% 상향되었으며, 평균 수출단가도 두당 약 224호주달러로 7.9%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생양 부문은 수출두 수 전망 자체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가격 전망 상향에 따라 수출액 전망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모의 경우 2026/27년 수출량은 36만 톤으로 3월 전망치 37.8만 톤보다 4.8% 하향 조정되었다. 반면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9.8호주달러로 3월 전망치 9.3호주달러보다 5.3%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양모 수출액은 약 35.3억 호주달러로 3월 전망 대비 0.3% 상향 조정된 것에 머물러 사실상 기존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수출물량 감소 효과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쇄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6월 보고서는 양모가격 상승 요인으로

7) ABARES는 2025/26년 생양 수출 전망을 당초 예상보다 크게 하향한 주요 원인으로 중동지역의 해상운송 차질을 제시하였다. 또한 높은 국내 양 가격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계절여건에 따른 번식용 암양 보유 확대도 서호주의 수출용 생양 공급을 제약한 것으로 평가함.

세계 양모 공급 감소와 호주 및 중국의 재고 축소, 중국 방직업체의 원료 확보 경쟁 등을 제시하였다.

〈표 5〉 양고기 및 생양 수출 전망

단위: 천 톤(선적 중량 기준), 천 두, 백만 호주달러, 호주달러/kg, 호주달러/두, %(변화율)

구분		2023/24	2024/25 ^s	3월 전망		6월 전망		2025/26 전망 변화율	2026/27 전망 변화율
				2025/26 ^f	2026/27 ^f	2025/26 ^f	2026/27 ^f		
양고기	수출량	629	651	546	499	541	560	-0.9	12.2
	수출액	4,783	5,664	5,924	5,370	6,048	5,645	2.1	5.1
	평균 단가	7.6	8.7	10.8	10.8	11.2	10.1	3.5	-6.7
생양	수출 두수	507	444	210	161	75	160	-64.3	-0.6
	수출액	46.3	55.9	48.2	33.5	18.9	35.9	-60.8	7.2
	평균 단가	91.4	126	230	208	252	224	9.7	7.9
양모	수출량	446	430	413	378	415	360	0.5	-4.8
	수출액	3,030	2,758	3,163	3,514	3,375	3,526	6.7	0.3
	평균 단가	6.8	6.4	7.7	9.3	8.1	9.8	5.6	5.3

주 1) 생양은 번식을 위한 양(breeding stock)을 포함함.

2) 평균 단가는 수출액을 수출량(또는 수출 두수)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3) 양모 수출량은 greasy(세척 가공 전 원모) 환산 기준이며, 이때 수출량과 수출액은 양가죽(sheepskins), 원모(greasy wool), 반가공 양모(semi-processed wool)를 포함함.

4)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임.

자료: ABARES(202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2.3. 가격 전망

2026/27년 호주의 양 경매장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이나,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램 가격은 도체중 기준 kg당 10.30호주달러로 전년의 11.33호주달러보다 약 9%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3월 전망치인 10.4호주달러보다도 약 1%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머튼 가격은 kg당 6.4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약 1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3월 전망치 6.85호주달러 비교해서도 6.6% 하향 조정되었다. 다만 실질가격 기준으로 램과 머튼 가격은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16%와 14%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6월 전망에서 양 가격의 하락 압력이 강화된 데에는 공급 및 수출시장 여건의 변화가 복

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램의 경우 2025/26년 후반의 계절 및 번식 여건 개선으로 2026/27년 도축 가능한 램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평균 이하의 기후 전망에 따른 재입식 심리 약화도 가격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중동지역의 분쟁과 운송 차질, 미국의 양고기 수요 정체 및 주요 수출시장의 경제성장 둔화가 수출 수요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튼 가격 역시 공급 및 가공 부문의 여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25/26년까지 높은 도축 수준이 지속되면서 가공 가능한 양의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높은 가축가격과 낮은 가공마진이 지속될 경우 일부 가공업체가 작업 교대 축소나 겨울철 가동중단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가축 확보를 위한 가공업체 간 경쟁을 약화시켜 2026/27년 경매장 가격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모 가격은 양고기와 달리 상향 조정되었다. 2026/27년 양모 가격은 kg당 17.8 호주달러로 전망되어 3월 전망치인 16.8호주달러보다 약 6.0% 상향 조정되었다. 6월 전망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약 12% 상승하는 수준이다. 세계 양모 생산 감소와 호주 및 중국의 재고 축소로 공급이 제한되는 가운데, 중국 방직업체의 원료 확보 경쟁과 중국 내 고급 패션 및 스포츠웨어용 모직제품 수요가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양 및 양모 가격 전망

단위: 호주달러/kg, %(변화율)

구분	2023/24	2024/25 ^s	3월 전망		6월 전망		2025/26 전망 변화율	2026/27 전망 변화율
			2025/26 ^f	2026/27 ^f	2025/26 ^f	2026/27 ^f		
램 가격	5.84	8.30	10.95	10.40	11.33	10.30	3.5	-1.0
머튼 가격	2.31	4.15	7.20	6.85	7.55	6.40	4.9	-6.6
양모 가격	11.61	11.64	15.25	16.80	15.90	17.80	4.3	6.0

주 1) 램(lamb)과 머튼(mutton)은 전국 거래 지표 가격(National Trade Lamb/Mutton Indicator)임.

2) 양모는 동부 시장 지표 가격(Eastern Market Indicator)임.

3) 양은 도체중 기준이며, 양모는 세정 양모 환산(clean equivalent) 기준임.

4)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임.

자료: ABARES (202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2.4. 불확실성 및 위험·기회요인

2026/27년 호주 양 산업의 주요 불확실성은 중동지역의 분쟁과 이에 따른 수출 및 물류 차질, 높은 생산비용,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둔화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동지역은 2024/25년 기준 호주 양고기 수출액의 약 23%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지역 내 분쟁에 따른 해상운송 차질과 에너지·보험·운임 상승은 양고기 수출의 수익성과 출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BARES는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공업체가 동일한 가격 수준으로 대체 시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그 영향이 호주 국내 경매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2026년 3월 호주의 중동지역 양고기 수출은 해상운송 감소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항공운송 증가가 이를 일부 상쇄하였다. 이라크와 이란으로의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레인·쿠웨이트·카타르·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중동시장으로의 수출도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송 여건은 양고기뿐 아니라 생양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2025/26년 생양 수출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하향 조정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높은 투입비용도 양 산업의 수익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중동 분쟁 이후 연료와 비료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운임도 높아지면서 가축 운송과 육류 가공 비용이 확대되고 있다. ABARES는 가공업체가 증가한 비용을 수출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할 경우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가공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료곡물과 조사료 가격까지 상승할 경우 양 사육의 채산성이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

대외 수요 측면에서도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 2026/27년 램 가격은 공급 증가와 평균 이하의 기후 전망에 따른 재입식 심리 약화뿐 아니라 중동지역의 분쟁, 미국의 수요 정체, 기타 주요 수출시장의 경제성장 둔화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호주 양고기 수출가격과 국내 경매장 가격 모두 2025/26년의 높은 수준에서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양모 부문에서는 세계 공급 감소가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양모 수출국에서 전모두수와 양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도 전모 양모 생산량이 2026/27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중국 방적업체의 원모 확보 경

쟁이 지속되면서 양모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높은 양모 가격은 번식용 암양 보유를 유도하고 양 사육두수의 추가 감소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건조한 기후와 높은 투입비용으로 인해 본격적인 사육두수 회복은 2027/28년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2.3. 돼지(Pigs and pig meat) 전망

2.3.1. 생산 전망

2026/27년 호주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49.2만 톤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3월 전망치인 51.4만 톤보다 4.3%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6월 전망에서는 평균 도체중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축두수 증가가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 도축두수는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600만 두 수준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생산 확대에는 건조한 국내 수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쇠고기와 양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낮은 돼지고기와 가금육으로의 소비 대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양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격 변동성이 낮아 2026/27년에도 소비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돼지고기 생산과 가격을 지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7〉 돼지고기 생산 전망

단위: 천 두(사육 및 도축), 천 톤(생산, 도체중 기준), %(변화율)

구분	2023/24	2024/25 ^s	3월 전망		6월 전망		2025/26 전망 변화율	2026/27 전망 변화율
			2025/26 ^f	2026/27 ^f	2025/26 ^f	2026/27 ^f		
사육 두수	316	319	322	325	322	319	0.0	-1.8
도축 두수	5,799	5,759	5,925	5,996	5,752	5,985	-2.9	-0.2
생산량	468	473	498	514	478	492	-4.0	-4.3

주 1) 사육 두수는 6월 30일 기준임.

2) 사육 두수는 번식용 후보돈(gilts)을 포함한 모든 사육 두수임.

3)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임.

자료: ABARES (202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3.2. 무역 전망

호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대부분은 국내 시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27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약 4만 톤(3.97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5/26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3월 전망치와 비교해서도 수출량 전망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 2026/27년 수출량은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49.2만 톤의 약 8% 수준에 해당해, 호주 돼지고기 산업이 수출보다 국내 수요에 상대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27년 돼지고기 수출액은 약 2억 600만 호주달러로 전망된다. 이는 2025/26년의 약 1억 9,660만 호주달러보다 약 4.8% 증가하지만, 3월 전망치인 2억 900만 호주달러와 비교하면 1.4%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평균 수출단가 역시 kg당 약 5.2호주달러로 3월 전망치 5.3호주달러보다 약 2.1% 낮아졌다. 따라서 6월 수정전망에서 돼지고기 수출 전망 자체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출 물량은 기존 전망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출액과 단가가 소폭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수입 전망은 3월보다 뚜렷하게 상향 조정되었다. 2026/27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16.8만 톤으로 3월 전망치 14.6만 톤보다 15.1%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약 10억 400만 호주달러로 3월 전망치 9억 2,300만 호주달러보다 8.8% 상향 조정되었다. 6월 보고서는 수입 돼지고기가 2025/26년 호주 전체 돼지고기 공급의 약 35%를 차지하며, 주로 염지육과 가공육(smallgoods)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다만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BARES는 주요 공급국의 수출 증가가 제한되면서 2026/27년 호주의 평균 돼지고기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실질가격 기준 최근 10년 평균보다 약 5%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높은 수입가격은 가공육 제조업체의 호주산 돼지고기 수요를 지지하고 국내산 원료 확보 경쟁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돼지고기 수출 및 수입 전망

단위: 천 톤(선적 중량 기준), 백만 호주달러, 호주달러/kg, %(변화율)

구분	2023/24	2024/25 ^s	3월 전망		6월 전망		2025/26 전망 변화율	2026/27 전망 변화율
			2025/26 ^f	2026/27 ^f	2025/26 ^f	2026/27 ^f		
수출량	42.5	40.8	39.3	39.7	39.3	39.7	0.0	0.0
수출액	211	207	201	209	197	206	-2.2	-1.4
수출 평균 단가	5.0	5.1	5.1	5.3	5.0	5.2	-1.9	-2.1
수입량	155	170	143	146	164	168	14.4	15.1
수입액	867	1,011	888	923	943	1,004	6.2	8.8
수입 평균 단가	5.6	6.0	6.2	6.3	5.8	6.0	-7.0	-5.1

주 1) 평균 단가는 수출액을 수출량(또는 수출 두수)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2)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임.

자료: ABARES (202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3.3. 가격 전망

2026/27년 호주의 돼지고기 가격(national over-the-hooks pig price)은 도체중 기준 kg당 약 4.61 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약 1%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3월 전망치인 4.84 호주달러보다 4.8% 하향 조정된 수준으로, 6월 수정전망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폭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었다.

돼지고기 가격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내 수요와 생산비에 의해 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6/27년에는 사료 곡물을 중심으로 투입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ABARES는 생산자의 수익성 악화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돼지고기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공업체와 소매 부문의 견조한 수요 역시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제시된다.

2.3.4. 불확실성 및 위험·기회요인

2026/27년 호주 돼지고기 산업에서는 사료곡물을 비롯한 투입비용 상승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견조한 기후와 높은 국내 사료 수요로 호주의 사료용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2026/27년 사료용 보리 등 주요 조사료·곡물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

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돼지고기 생산에서 사료비가 주요 생산비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격 상승은 생산자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견조한 국내 소비수요는 돼지고기 산업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쇠고기와 양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와 가금육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백질원으로 소비를 대체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 부문의 견조한 수요도 국내 돼지고기 시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염지육 및 가공육(cured meat and smallgoods) 제조업체는 상당한 규모의 수입 돼지고기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요 공급국의 수출 증가가 제한되면서 2026/27년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ABARES는 높은 수입가격으로 인해 가공업체의 호주산 돼지고기 확보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국내 돼지고기 수요와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가금류(Poultry) 전망

2.4.1. 생산 전망

2026/27년 호주의 닭고기 생산은 6월 전망에서 3월 전망보다 상향 조정되었다. 도축두수는 3월 전망치 7억 8,300만 수에서 6월 8억 200만 수로 2.4% 상향 조정되었으며, 생산량 역시 166.1만 톤에서 164.7만 톤으로 2.2%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6월 전망 기준으로 도축두수와 생산량은 2025/26년 대비 각각 약 2.3%,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닭고기 생산 전망

단위: 백만 두(도축), 천 톤(생산, 도체중 기준), %(변화율)

구분	2023/24	2024/25 ^s	3월 전망		6월 전망		2025/26 전망 변화율	2026/27 전망 변화율
			2025/26 ^f	2026/27 ^f	2025/26 ^f	2026/27 ^f		
도축 두수	734	752	774	783	784	802	1.3	2.4
생산량	1,449	1,535	1,631	1,661	1,599	1,647	-2.0	-0.8

주 1)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임.

자료: ABARES (202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4.2. 무역 전망⁸⁾

2026/27년 호주의 가금육 수출량은 6만 5,200톤으로 전망되어 3월 전망치인 6만 3,700톤보다 2.3% 상향 조정되었다. 6월 전망 기준으로는 2025/26년의 6만 5,600톤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출물량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출액 전망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6/27년 가금육 수출액은 1억 5,300만 호주달러로, 3월 전망치인 1억 2,900만 호주달러보다 18.8% 증가하였다. 수출 평균 단가도 kg당 2.0호주달러에서 2.4호주달러로 17.6%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6월 수정전망에서 가금육 수출액의 증가는 수출물량 확대보다는 수출 평균단가의 상향 조정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닭고기 수출 전망

단위: 천 톤(선적 중량 기준), 백만 호주달러, 호주달러/kg, %(변화율)

구분	2023/24	3월 전망			6월 전망			2025/26 전망 변화율	2026/27 전망 변화율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4/25 ^s	2025/26 ^f	2026/27 ^f		
수출량	52.8	46.5	62.7	63.7	45.0	65.6	65.2	4.6	2.3
수출액	138	119	124	129	116	147	153	18.8	18.8
수출 평균 단가	2.6	2.6	2.0	2.0	2.6	2.2	2.4	12.4	17.6

주 1) 수출량은 육가공품(prepared meat), 보존육(preserved meat), 식용 부산물 및 혈액(meat offal and blood)을 포함함.

2) 평균 단가는 수출액을 수출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3)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임.

자료: ABARES (202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4.3. 가격 전망

2026/27년 호주의 가금육 가격 전망은 3월 전망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전망에서 ABARES는 가금류 도축의 평균 단위 가치가 전년 대비 약 8% 상승한 도체중 기준 kg당 2.79 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6월 전망에서는 사료 곡물을 비롯한 투입비용 상승이 가금육 가격의 주요 상승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8) 닭고기, 오리, 칠면조, 기타 가금류를 포함함.

2.4.4. 불확실성 및 위험·기회요인

2026/27년 호주 가금류 산업에서는 사료곡물 등 투입비용 상승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국내 수요는 가금육 생산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제약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고기와 가금육 같은 단백질원으로 소비가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 증가와 소매·외식 부문의 수요 확대가 가금육 소비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퀵서비스 레스토랑에서 닭고기를 활용한 제품 공급이 확대되는 점도 수요 증가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2.5. 유제품(Dairy products) 전망

2.5.1. 생산 전망

2026/27년 호주의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2% 감소한 80억 8천만 리터로 전망된다. ABARES는 사료·비료·연료 등 주요 투입재의 비용 상승과 가용성 저하로 젖소 사육두수가 감소하면서 원유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높은 생산비 부담으로 일부 낙농가가 사육두수를 줄이거나 낙농업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3월 전망과 비교하면 원유 생산량의 감소폭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완화되었다. 2026/27년 젖소 사육두수는 3월 전망치 125.5만 두에서 6월 124.3만 두로 0.9% 하향 조정된 반면, 두당 산유량은 6,422리터에서 6,501리터로 1.2%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유 생산량은 3월 전망치 80억 5,900만 리터에서 6월 80억 8,400만 리터로 0.3% 상향 조정되며 두당 산유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⁹⁾

원유의 용도별 전망도 3월과 차이를 보였다. 2026/27년 음용유 판매량은 3월 전망보다 3.3% 감소한 22억 3천만 리터로 하향 조정된 반면, 제조용 원유는 1.7% 증가한 58억 5천만 리터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유제품 생산 전망도 품목별로 다르게 조정되었다. 치즈 생산량은 3월 전망보다 2.6% 증가한 43.1만 톤, 탈지분유는 3.6% 증가한 17.2만 톤으로 상향 조정된 반면, 버터는 2.5% 감소한 3.9만 톤, 전지분유는 8.0% 감소한 2.3만 톤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9) ABARES는 건조한 기후가 고수율 보충사료의 이용을 늘리는 한편, 유방염 등 습윤한 기후와 관련된 질병 발생을 줄여 젖소 두당 산유량을 일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ABARES는 2026/27년 높은 탈지분유 가격과 버터·치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전지분유보다 치즈와 탈지분유 생산에 대한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6월 수정전망에서는 전체 원유 생산 감소 전망은 유지되지만 3월 전망과 비교하면 치즈와 탈지분유 생산 전망은 상향되고 버터와 전지분유는 하향되는 등 제품별 생산 구성이 다를 수 있다.

〈표 11〉 원유 및 주요 유제품 생산 전망

단위: 천 두(사육), 리터/두, 백만 리터(원유 생산량), 천 톤(유제품), %(변화율)

구분	2023/24	2024/25 ^s	3월 전망		6월 전망		2025/26 전망 변화율	2026/27 전망 변화율
			2025/26 ^f	2026/27 ^f	2025/26 ^f	2026/27 ^f		
젖소 사육 두수	1,330	1,300	1,271	1,255	1,274	1,243	0.2	-0.9
두당 산유량	6,298	6,396	6,409	6,422	6,455	6,501	0.7	1.2
원유 생산량	8,376	8,315	8,149	8,059	8,224	8,084	0.9	0.3
음용유 판매	2,383	2,340	2,325	2,306	2,249	2,231	-3.2	-3.3
제조용 원유	5,993	5,975	5,824	5,753	5,974	5,853	2.6	1.7
버터	67.8	40.7	40.5	40.0	41	39	0.0	-2.5
치즈	386	431	425	420	435	431	2.4	2.6
전지분유	25.6	27.7	26.0	25.0	24	23	-7.7	-8.0
탈지분유	155	171	168	166	173	172	3.0	3.6

주 1) 사육 두수는 6월 30일 기준이며, 착유 중인 젖소(cows in milk)와 건유우(dry cow)를 포함함.

2) 버터는 2024/25 이전에는, 버터오일(butter oil), 버터 농축물(butter concentrate), 무수 유지방(dry butterfat), 기(ghee)를 버터 환산 기준으로 포함함.

3) 치즈는 가공 치즈(processed cheese)는 제외함.

4)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임.

자료: ABARES (202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5.2. 무역 전망

2026/27년 호주의 유제품 수출은 원유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BARES는 젖소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원유 생산 감소와 시유 판매량의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으로 인해 유제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원유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제품 생산과 수출도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3월 전망과 비교하면 유제품 수출액 전망은 상향 조정되었다. 2026/27년 유제품

수출액은 3월 전망의 34억 500만 호주달러에서 6월 35억 9,300만 호주달러로 5.5%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유제품 수출물량 자체의 전반적인 확대보다는 유제품 수출가격 전망의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ABARES는 6월 전망에서 3월 대비 축산물 수출액 상향 조정 요인 가운데 하나로 높은 유제품 수출가격을 제시하였다.

품목별로는 수출량 전망이 상이하게 조정되었다. 2026/27년 치즈 수출량은 3월보다 2.5% 증가한 16.8만 톤, 탈지분유는 7.4% 증가한 16.0만 톤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반면 버터는 22.0% 감소한 1.4만 톤, 전지분유는 16.5% 감소한 3.45만 톤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ABARES는 높은 탈지분유 가격과 버터·치즈 가격의 상승이 전지분유보다 치즈와 탈지분유의 공동생산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즈와 탈지분유 등의 수출량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전지분유를 포함한 기타 유제품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호주산 유제품의 해외 수요 여건은 비교적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호에서는 인구 및 소득 증가와 소비 선호 변화에 힘입어 세계 유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1인당 소비 증가, 베트남 시장 확대 등 동남아시아 수요 증가가 호주산 유제품 수출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 내 원유 및 유제품 생산 증가로 추가적인 소비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면서 호주 및 뉴질랜드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표 12〉 유제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 호주달러, 천 톤(수출량), %

구분	2023/24	2024/25 ^s	3월 전망		6월 전망		2025/26 전망 변화율	2025/26 전망 변화율
			2025/26 ^f	2026/27 ^f	2025/26 ^f	2026/27 ^f		
수출액	3,377	3,727	3,585	3,405	3,666	3,593	2.3	5.5
버터 수출량	13.6	19.4	18.6	18.0	14.2	14.0	-23.8	-22.0
치즈 수출량	151	169	166	164	165	168	-0.4	2.5
탈지분유 수출량	144	158	153	149	156	160	1.8	7.4
전지분유 수출량	31.6	45.7	43.2	14.3	36.0	34.5	-16.7	141.3

주 1) 버터는 2024/25 이전에는, 버터오일(butter oil), 버터 농축물(butter concentrate), 무수 유지방(dry butterfat), 기(ghee)를 버터 환산 기준으로 포함함.

2)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임.

자료: ABARES (202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5.3. 가격 전망

2026/27년 호주의 원유 생산자 가격은 리터당 약 0.76 호주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3월 전망치보다 6.6% 상향 조정된 수준이다. 원유 생산 감소와 유제품 수출가격 상승 전망이 반영되면서 3월보다 생산자 가격 전망이 높아졌다. ABARES는 2026/27년 원유 생산자 가격이 전년 대비 약 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27년 탈지분유 국제가격은 3월 전망치인 톤당 2,733달러에서 6월 3,142달러로 15.0%, 전지분유는 3,616달러에서 3,896달러로 7.7% 상향 조정되었다. 반면 버터와 치즈의 2026/27년 전망치는 각각 6,492달러와 5,075달러로 3월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ABARES는 2026/27년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가격이 공급에 비해 강한 세계 수요로 인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미국의 제한적인 탈지분유 공급과 견조한 수출수요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치즈와 버터 등 유지방 함량이 높은 유제품의 가격 상승폭은 분유류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의 치즈 생산과 완만한 세계 수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원유 생산 증가가 유제품 수요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면서 호주 및 뉴질랜드산 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유제품 가격 전망

단위: 호주달러/리터(원유 생산자 가격), 달러/톤(국제가격), %

구분	2023/24	2024/25 ^s	3월 전망		6월 전망		2025/26 전망 변화율	2025/26 전망 변화율
			2025/26 ^f	2026/27 ^f	2025/26 ^f	2026/27 ^f		
원유 생산자 가격	0.74	0.72	0.74	0.71	0.74	0.76	0.0	6.6
버터 국제가격	5,667	7,096	6,138	6,492	6,371	6,492	3.8	0.0
치즈 국제가격	4,483	4,921	4,719	5,075	4,815	,075	2.0	0.0
탈지분유 국제가격	2,667	2,819	2,554	2,733	2,904	3,142	13.7	15.0
전지분유 국제가격	3,204	3,846	3,393	3,616	3,646	3,896	7.5	7.7

주 1) 원유 생산자(산지) 가격: farmgate milk price.

2)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임.

자료: ABARES (202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5.4. 불확실성 및 위험·기회요인

2026/27년 호주 낙농산업은 주요 투입재의 비용 상승과 국내 원유 생산 감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ABARES는 사료·비료·연료 등 주요 투입재의 비용 상승과 가용성 저하가 일부 낙농가의 젖소 사육두수 감축이나 낙농업 이탈로 이어지면서 원유 생산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공업체 역시 높은 투입비용과 불확실한 거시경제 여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유제품 시장에서는 주요 수출국의 원유 생산 감소가 국제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생산 여건 악화에 따른 젖소 사육두수와 두당 산유량 감소로 유제품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뉴질랜드도 건조한 기후에 따른 목초 생육 저하로 원유 생산량이 전년의 높은 수준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은 생산성 향상과 젖소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원유 및 유제품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성장이 호주산 유제품 수출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및 소득 증가와 소비 선호 변화에 따라 세계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1인당 유제품 소비 증가와 베트남 시장 확대가 호주산 유제품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남아시아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도 호주산 유제품 수출에 유리한 요인으로 제시된다.

중국의 유제품 수요는 높은 국내 원유 및 유제품 생산으로 인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구제역(FMD)이 심화될 경우, 중국의 원유 생산이 감소하면서 2026/27년 수입 유제품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중국의 가축 질병 발생 상황은 호주산 유제품에 대한 수입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요 유제품의 국제가격은 2026/27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호주달러 강세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호주 생산자와 수출업자에게 전달되는 정도를 제한할 수 있다. ABARES는 주요 유제품의 평균 수출가격이 미 달러화 기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호주달러 절상으로 인해 호주달러 기준 가격 상승폭은 완화될 것으로 본다.

3. 요약 및 시사점

2026년 6월 전망은 3월 이후 악화된 계절여건과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및 투입재 비용 상승,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호주달러 강세 등을 반영하였다. 특히 3월 전망 보고서에서 위험요인으로 제시되었던 건조한 기후가 일부 축산지역에서 실제 출하와 도축 증가로 이어지면서 축산부문의 생산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6월 수정전망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건조한 기후가 단기적으로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6/27년 축산 및 축산물 생산액은 약 474억 호주달러로 3월 전망보다 약 40억 호주달러(9%)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건조한 기후로 가축 출하와 축산물 생산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특히 소의 경우 높은 도축 수준은 단기적으로 쇠고기 생산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번식우 감소와 송아지 생산 감소를 통해 향후 사육기반을 제약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변화는 품목별 수급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소와 양은 높은 출하 이후 가축 공급 감소의 영향을 받는 반면, 돼지고기와 가금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백질에 대한 국내소비 대체 수요에 힘입어 생산 증가가 전망된다. 양모와 유제품의 경우에는 공급 제약과 세계시장 수급여건이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유제품은 호주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뉴질랜드 등의 생산 감소가 세계 공급을 제약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의 수요 증가가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6월 전망에서는 주요 수출시장의 통상여건이 축산물 수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호주산 소고기 세이프가드, 미국 시장의 호주산 양고기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 중동지역의 물류 차질 등 시장별 접근조건이 축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호주달러 강세 역시 호주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소득 및 소비 증가가 호주산 유제품 수요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호주 축산물 수출을 평가할 때에는 전체 수출량뿐 아니라 주요 시장의 통상정책, 수요 변화 및 환율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6월 전망은 생산액과 농가 수익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축산 및 축산물 생산액 전망은 3월보다 크게 상향 조정되었지만, 동시에 농가가 부담하는 투입비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에너지 시장 불안으로 연료와 비료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노동·운송·전력·서비스 등 다른 투입비용도 높은 수준을 유지되어 축산부문에서도 높은 사료 및 기타 투입비용이 생산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가축 출하 증가로 생산액이 확대되더라도 비용 상승을 함께 고려하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성고가 동일한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전망 변화는 한국에서도 호주 축산물의 단기적인 공급 증가만으로 향후 수입여건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 전망상 호주의 높은 생산 수준은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사육기반이 축소될 경우 공급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소고기 수입정책과 주요 수출시장의 접근조건, 호주달러 환율, 에너지 및 운송비 변화에 따라 호주의 수출가격과 시장별 물량 배분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관점에서는 호주의 단기 생산량뿐만 아니라 가축 사육두수와 번식기반, 투입비용, 환율 및 주요 수출시장의 정책 변화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ABARES(2026),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 March quarter 2026, 16(1),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2026),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 June Quarter 2026,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